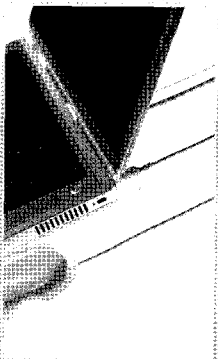




▶▶▶ **조합 · 업계소식** www.kcca.or.kr



- DY그룹 권혁홍 부회장,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 서훈
- 대양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 한국아사히마시나리(주) 신제품제작 발표회 개최
- 김순철 회장, 포장산업 유공자 표창
- 골판지 가격 19.5%수준 인상 합의
- 골판지포장 관련 KS규격 등 개정 계획
- 명문장수기업인상 대아산업(주) 박병웅 대표이사 수상
- [농민신문] 골판지 상자값 인상과 전망
- 골판지 상자값 인상과 전망
- (주)삼화판지 이병근 기능장 “보일러대상 수상”

DY그룹 권혁홍 부회장,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 서훈



DY그룹 권혁홍 부회장은 지난 5월 14일 제 22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함께 여는 미래, 중소기업 인과의 대화”라는 행사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여 받았다.

이날 권혁홍 부회장은 제지산업에 40년간 전념하면서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24년간 약 35배의 매출 증가를 이루는 등 제지 산업발전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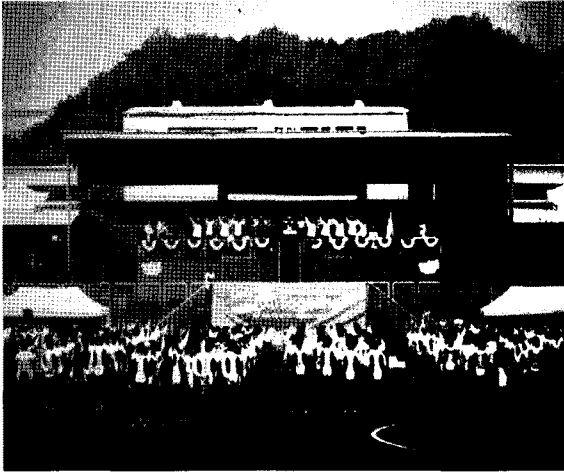
또한 이 대통령은 중기 대표

와 소상공인 등 400여명이 참석자들에게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먼저 우리 사회에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며 “작지만 강한 ‘히든 챔피언’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서훈을 계기로 SBS에서는 “중소기업의 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권혁홍 부회장의 하루를 촬영하고 5월 14일(수) 12시30분 방영됐다. 한편 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에서는 시흥시 소재 시흥관광호텔 송죽에서 조합 오진수 이사장, 태림포장공업(주) 정동섭 회장, (주)삼보판지 류종우 부회장, 한국수출포장공업(주) 허용삼 대표이사, 제일산업(주) 손명섭 대표이사, 신안포장산업(주) 김일영 대표이사, 아세아제지(주) 이재홍 대표이사가 참석한 긴급회장단회의를 소집하여 제지조합 권 이사장의 금탑산업훈장 서훈은 제지 및 골판지포장업계의 산업계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고 평가하면서 각별한 축하인사를 건넸다.

※ 산업훈장은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써 5가지로 구분되며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산업훈장으로 나누어진다.

대양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대양그룹은 지난 5월 15일 창립 40주년기념으로 "Let's 高 Together"라는 슬로건 아래 안산 반월공단 5주구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체육대회는 대양그룹 권혁용 회장을 비롯한 6개의 계열사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전날 권혁홍 부회장의 금탑산업훈장 수훈 소식이 더해져 축하의 자리도 함께 마련되었다.

또한, 개회사를 통해 권혁용 회장은 “5명으로 시작한 기업이 이제 임직원 1,000여명 내외인 대양그룹으로 성장했고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함께한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 장수기업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임직원의 힘을 모으자”고 전하였다.

이날 체육대회는 임직원과 가족이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장기자랑 및 축구, 배구, 족구, 줄다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친목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한국아사히마시나리(주) 신제품제작 발표회 개최

Lap Feeder



MRC (자동조정장치) 탑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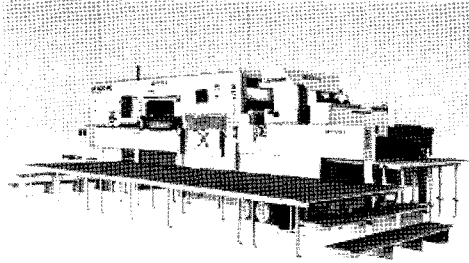
적용기종
AP-1600, AP-1600SPS
AP-1700, AP-2000
AP-2100

적용속도
5000i.p.h.
~7200i.p.h

“골판지평반타발기 휘더의 신개념 급지 방식 개발”

골판지포장기계제조업체인 한국아사히마시나리(주)는 지난 5월 11일 본사 전사공간에서 그동안 연구개발해 오던 골판지평반타발기(Model:AP-1600MII)의 휘더를 새로운 형식으로 완성하여 제작발표회를 진행하였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AP-1600MII의 Lap Feeder(랩 휘더)로써 현재 국내를 비롯한 일본, 중국, 유럽에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아사히마시나리(주)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방식을 완전히 뛰어넘은 세계 최초



의 급지 방식인 오버랩핑 방식이다. 이번 방식은 AB골(이중 양면) ~ E골 및 합지물(칼라박스)까지 다용도로 여러가지 Sheet에 대응이 가능한 랩히더이며, 특징으로는 한장의 Sheet가 급지 됨과 동시에 다음 Sheet가 그 위로 오버랩핑 되어 급지가 됨으로서 Sheet에 부하가 걸리지 않으며 이송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급지시의 트러블을 현저히 격감 시켰고, 안정된 Sheet의 공급과 더불어 Back Pusher 및 Side guide의 장착으

로 핀트의 정도를 $\pm 0.5\text{mm}$ 로 높혀 생산성 향상 및 보다 정확한 핀트를 맞춰 생산을 가능토록 하였다. 랩히더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추후 MRC (핀트보정장치)의 탑재가 가능하여 인쇄 공정에서의 불량 Sheet를 랩히더 위에서 체크하여 위치를 보정한 후 프레스에 진입시켜 타발함으로 불량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불량품 발생률을 크게 감소시켜 골판지산업의 생산능률향상 및 Loss율 감소에 기여할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아사히마시나리(주)는 본사인 일본아사히마시나리(주)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보다 나은 경쟁력 있는 해외생산 기지를 확보하여 세계 각지에 시장을 넓히기 위한 취지로 1988년 3월 설립한 이래 끊임 없이 발전해 왔다. 주 생산품인 자동평판타발기는 각종 주요부품과 전기부품등을 일본 본사로부터 직접 공급 받아 엄선된 부품을 사용하여 품질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순철 회장, 포장산업 유공자 표창

2010. 6. 1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된 KOREA PACK 2010(국제포장기자재전)과 병행하여 개최한 미래 패키징 신기술대전에서 한국지기공사 김순철 회장께서 포장산업 육성 유공자로 선정되어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김회장은 지난 50여년간 일관되게 제지포장분야에 몸담으면서 제지 및 골판지포장분야의 기술발전과 이론정립 등으로 포장산업의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1932년생으로 전북 부안 출생인 김회장은 1957년 전북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복선제지(주), 무립제지(주), 한국수출포장공업(주)를 거쳐 한국지기공사를 설립,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후학을 위해 골판지신기술 등 수많은 저술활동을 해왔으며, 강원대학교 제지공학과 강의를 비롯해 한국펄프종이공학회 부회장, 한국산업표준심의회(KS) 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한국제지기술인협회 회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공적을 감안하여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오진수)은 지식경제부에 추천하여 포장산업 유공자로 선정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날 시상식에서 지식경제부 김준동 국장은 “이런 분들이 불모지에 불과한 한국산업의 바탕을 일구어주셨기 때문에 세계와 경쟁하는 오늘날의 우리가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였고, 월간포장산업의 김청회장은 제지포장분야의 대표적인 원로로서 모든 제지포장인들로부터 존경 받아온 김회장 유공자포상은 만시지탄이지만 우리모두가 축하해야할 일이라며 기뻐하였고, 이날 시상식장에는 조병묵 강원대 명예교수, 오해룡 성장무역 회장과 조육기 제지기술인협회 부회장이 함께 하였다.

골판지 가격 19.5%수준 인상 합의

서울경제

THE SEOUL ECONOMIC DAILY

오피니언

제13387호 45면 2010년 5월 25일 화요일 39

기자의 뜰

납품단가 갈등의 '도용이표'

연휴가 끝난 지난 23일 오전 매일 한통을 받았다. 포장 상자 납품단가 인상 폭을 둘러싸고 대기업 C사와 참여주계 대표들은 골판지포장 업체 4곳이 협상 타결을 이뤘다는 내용이였다. 해당 정부부 "납품 수준까지 거론하며 해결



신경림 기자 (성경기업부)

방가 될 요구해온 이들 협정은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을 존중하 받아들이 대승적 결단을 해준' C사에 감사사를 보낸다는 '이런 결정을 자문화했다'는 중소기업 협상협력이 이뤄지고 갑과 을의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정립하는 권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주된협계의 상진중단이 자유로운 와중에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골판지포장 업체의 협상 타결은 물론 중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업체들의 기대처럼 이번 양이 실제 갑을 관계 해소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갈등과 싸움은 때가 되면 되풀이된다. 2004년에 그랬고 2008년에도 그랬다. 오죽하면 납품단가 협상을 겪고 있는 한 조합 관계자는 '이제 납품단가만 고하면 두드러지가 납 정도'라는 하소연일까 싶다.

문제가 풀거지고 해소되는 과정도 항상 같은 패턴을 보여왔다. '올'인 중소기업들은 비합리 끝에 물러나도 골판지포장업체의 원한과 응을 두드러지 못했다. '납품 중단'이라는 극단적 대응을 거둬야야 인본에 호소해야 정부-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을 의 요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한달 전 앞세워서 '납품 중단'을 언급한 C사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소 수출업체들이 일부 생산중단에 동참하면서 행동에 나서자 협상문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갑을 2개월도 여장했던 최후 협상일보다 나흘이나 빠른 20일 밤 골판지포장 협상 타결에 도달한 것은 협상 당사자들이 갑과 을의 상생협력에 눈을 떠서라기보다는 양측에게 조항에 나선 골판지업체의 적극적인 개인 결과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파국을 막는 것은 물론 중요했다. 하지만 물이 또 흐른 시작에 불과해골판지타결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는 없다. 납품단가를 둘러싼 골판지 '도용이표'를 풀리기 위해 정부가 노력했단다는 건 본직업 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적다.

star@sed.co.kr

mk.co.kr

2010년 5월25일 화요일

안내: (02)2000-2114 제13781호 17면

매일경제

A16

골판지 가격 19.5% 인상 합의

대·중기 납품가 갈등 진정 국면...주물업계도 타결 잇따라

골판지업체가 대기업과 납품단가 협상을 타결하고 주물업계에서도 업계별로 협상 타결 소식이 잇따르는 등 납품단가 인상을 둘러싼 대·중소기업 간 갈등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24일 "조합 내 골판지 포장업체 4곳과 대기업 (사)가 포장용 상자 납품단가 인상에 최종 합의했다"며 "상자 크기와 종류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19.5% 올려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장용 상자를 생산하는 4개사와 대기업 (사)는 올해 초부터 납품단가 인상 여부를 놓고 갈등을 보였다.

조합은 지난해 방 (사)가 더 이상 단가를 인상해주지 않으면 납품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했으나 (사)가 협상을 요구해오면서 납품 중단 조처를 일단 유예하고 협상을 이어오다 이런

에 (사) 19점을 이끌어냈다.

(사) 골판지조합 전무는 "예년 요구한 단가 인상률은 22%였지만 한 달간 상호 논의한 끝에 19.5% 인상으로 합의했다"며 "사과상자 크기 무직상자 납품가격이 500원에서 600원 정도로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주물업계에서도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지난 19일 이후 현대차 (사) 협에서 2곳과 협상을 마무리 지었고, 다른 2곳과도 의견 차이를 이룬 상태"라며 "지난 연휴 기간에 중장비업체 1곳과도 협상을 타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대차기 직급적인 자세를 보았다는 소식이 (사) 협에서 들리던 것 같다"며 "GM대우 등 여전히 납품단가 인상에 부정적인 업체가 일부 있지만 이번주 안 협상이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물업계는 해당 납품단가를 자동 차용 주물은 150원 내외, 조성은 350원, 중장비-공작기계는 200원, 선업기계는 300원 인상에 달리고 요구한 상태.

이 중 조선기계가 분야는 주물업계가 요구한 인상률 70% 수준에서 납품단가를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작기계 분야는 인상 폭에 대한 의견은 존재하지만 협상 타결 자체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주물업계 관계자는 "공작기계업체가 지난해 임를 추진으로 최저임면치 못했던 점을 고려해 대기업들이 일단 유예는 경영 실적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내년에 중소기업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홍·서정우 기자

한국경제

2010년
5월 25일 화요일
hankyung.com

전화 1662-2100 · 팩스 1662-2100 · 4111

2010년 5월 25일 화요일 **A 23**

대·중기 납품단가 갈등 진정국면

공편저 가격 인상·수출 생산 재개

납품단가와 관련된 납품업체와 수요업체 간 갈등이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다. 납품단가 감축을 촉박했던 출판지 업계와 식료품 기업들이 출판지 가격 인상에 합의하고, 생산 중단에 들어갔던 수출 업체들도 생산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한국공편저조합(이하 공편저)은 24일 출판지 업체 4곳과 식료품 기업 2사가 포함된 공편저 비상 납품가격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호전수 공편저조합 이사장은 "대·중기와 종류에 따라 인상폭이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19.5% 정도 올리

기도 했다"고 밝혔다.

수출 납품단가 인상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빠른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주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현재 180여 곳에 달하던 생산 중단 업체가 이날 현재 120여 곳으로 감소했다. 주류업체들이 보통 120~200만원의 인상을 주장했던 완성차 부품용 수출의 경우 경제 100억가량 이상 된 가격에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협의가 결단했던 공작기계 부품 분야에서도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일부 업체는 해당 200원 정도 인상분 안에서 공감을 재개했다.

한국공편저 조합 at superhankyung.com

골판지포장 관련 KS규격 등 개정 계획

한국골판지포장조합은 골판지포장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부포장용 골판지의 골수가 현재의 KS규격과 차이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고, 해외표준사례를 비교 검토한 결과 B골의 골판지 골수를 하향 조정하여 해외표준과 부합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기술표준원에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용하는 농산물표준규격에는 상자의 중량을 표기토록 하고 있으나 허용 오차가 특별히 규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동일한 원자 배합에도 불구하고 수분함량의 차이 또는 규격치수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중량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상자 중량에도 상응한 허용오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를 통해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명문장수기업인상 대아산업(주) 박병웅 대표이사 수상



대아산업(주) 박병웅 대표이사는 최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제2회 명문장수기업인상' 시상식에서 국가 경제발전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기업은행장상을 수상했다.

1978년 설립된 대아산업(주)는 수출품 포장재로 골판지상자를 생산하여 전자제품 수출에 일익을 담당하였고, 시스템 개선 및 생산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을 경영한 결과 5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였으며, 2000년에는 1,000만불 수출을 달성하는 등 꾸준한 매출을 증대시켜 2008년 대비 2009년에는 11.16%의 매출 증대를 실현하였다.

또한 꾸준한 기술개발로 1986년 대아수지공업(주), 1990년 한국에프덴(주)을 설립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농민신문] 골판지 상자값 인상과 전망



올봄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다. 5월인데도 농촌지역은 냉·습해로 과수를 비롯한 농작물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엔 국내 종이 수급에도 비상이 걸리면서 농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연간 펄프 수입량(200만여t)의 21%를 차지하는 칠레가 지진 피해로 펄프 공장과 항만이 파괴된 탓이다. 이로 인해 국내 종이값은 연초 대비 15% 이상 올랐고, 앞으로 국제 펄프값 강세에 따라 추가 인상도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기다. 종이값 인상으로 골판지 상자값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비용을 줄인다면 원가상승 요인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과일 상자는 흰색의 고급 표면지를 사용하고 인쇄 도수도 4도 이상을 기본으로 할 정도로 화려하다. 반면 수입 상자는 황색 표면에 인쇄도 화려하지 않다. 더욱이 수십일간 냉장 상태로 이동되는 수입 상자와 달리 국내 상자는 10일밖에 유통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겉모습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화려한 인쇄를 위해 드는 50~100원의 잉크값에다 고급 흰색 표면지값까지 고려하면 10~15%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니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모두 영농 및 유통 자제를 소중하게,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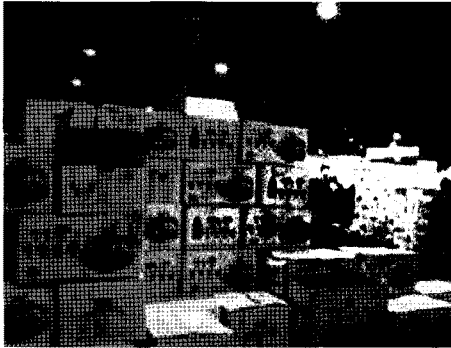
골판지 상자값 인상과 전망

국제 펄프값의 강세와 농산물의 성출하기 등이 맞물리면서 골판지상자값의 추가 인상이 전망되고 있다.

국제 펄프값 강세로 추가인상 될듯

골판지 원료인 폐지값 인상 여파로 골판지상자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국제 펄프값 강세와 농산물의 성출하기, 과일상자용 라이너값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골판지상자값이 추가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가들 스스로 골판지상자의 과대 포장을 개선하는 등 원가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얼마나 올랐나=골판지업계에 따르면 골판지상자값은 지난해와 견줘 평균 20% 이상 인상됐다.



양창진 강원농협연합포장사업소 공장장은 “골판지상자값은 품목과 인쇄 방식에 따라 다르다”며 “감자의 경우 20들이 상자 당 700~900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20%(140~180원)나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올 1월 초 kg당 120원 하던 골심지 재료인 폐지값이 최근 200원가량으로 66% 이상 급등하면서 골판지상자의 주원료인 골심지(골판지 내부의 물결 모양 종이)와 라이너(표면의 반듯하고 뽀뽀한 판지)값이 연동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톤당 35만5,000원 하던 골심지값은 지난 3월 말 46만원으로 30%가량 인상됐다. 같은 기간 동안 황색 라이너 역시 46만원에서 56만원으로 22%가량 올랐다.

김진무 골판지조합 전무는 “이 같은 골판지 원지값 폭등은 수출에 따른 폐지 부족 때문”이라면서 “특히 지난해 원화 약세로 폐지 수입량은 준 반면 폐지와 골심지 수출이 크게 늘어 19만여톤의 원료 부족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 추가 인상은=토마토 등 농산물의 성출하기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 1일 톤당 65만원 하던 마닐라 라이너값이 75만원으로 15.5%(10만원)나 올랐다. 마닐라 라이너는 사과 등 과일용 골판지상자에 사용되는 고급 표면지. 특히 칠레 강진 등의 여파에다 펄프를 미리 사 두려는 가수요까지 더해지면서 국제 펄프값의 강세가 지속돼 골판지상자값의 추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지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톤당 500~630달러이던 국제 펄프값은 최근 840~940달러까지 치솟았다. 업계는 이르면 이달 말쯤 국제 펄프값은 톤당 1,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대로라면 골판지상자의 펄프 비중이 7~10%이고, 라이너값이 추가 인상된 점을 감안할 때 10% 이상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지구책 마련해야=관련 전문가들은 골판지상자의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농업인의 지구책 마련과 함께 폐지의 수출 제한을 제도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성호 농촌진흥청 박사는 “농산물이 과대 포장되는 경향이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배상자의 경우만 해도 재료비가 660여원에서 780여원으로 15% 이상 차이가 있는 점을 미뤄 볼 때 재료와 컬러 인쇄 방식 등을 개선할 경우 10% 이상의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골판지조합은 골판지 원지의 색상을 단순화하고 골판지 원지 수출을 자제하는 동시에 폐지의 수출 통제 및 긴급 수입을 통한 원료의 안정적 조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삼화판지 이병근 기능장 “보일러대상 수상”

(주)삼화판지(대표이사 류경호)의 이병근 기능장은 지난 6월 12일 한국보일러사랑재단이 주최하는 “제3회 한국보일러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여했다.



이 기능장은 (주)삼화판지에서 근무하다 2007년 (주)삼화판지 인수를 계기로 포천공장으로 발령받아 기관실 보일러 기능장으로서 기계배관 시공 및 소방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폐열 회수장치를 통해 응축수의 회수율을 98%이상 높이고 재증발증기를 회수하여 15~20%의 연료절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연구 및 개발 중이며 연구가 완료되면 우리 동종 업계에 권장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기능장은 보일러기능장, 배관기능장 등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들도 에너지기술인으로써 동종 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자 기능장이다. 이 기능장은 “항상 원대한 희망과 꿈을 갖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좌우명을 통해 골판지 업계에 근무하는 에너지기술인으로서 환경 친화적으로 보일러를 관리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여 경영합리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기능장은 에너지를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에너지기술인으로서 현재 급상승하는 원유값 및 원자재 공급불안 등 어려운 난관을 극복 하려면 에너지 절약과 열설비의 효율을 상승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으며 “우리업종에 다년간 근무한 경험 통해 얻어진 노하우와 지식을 동종 업계에 근무하는 에너지기술인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골판지업계의 에너지관계인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